

2019년 1월 16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실적 개선 기대감 유입되며 상승 영국의회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불구 영향력은 제한적

시장 참여자들 실적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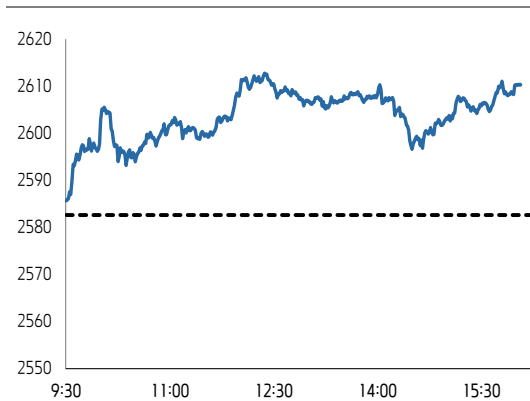
미 증시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와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특히 FANG 과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승 주도. 한편, 섣다운 장기화와 브렉시트 표결 불확실성은 제한된 영향. 이를 감안 시장 참여자들은 주변 여건보다 기업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춘 모습(다우 +0.65%, 나스닥 +1.71%, S&P500 +1.07%, 러셀 2000(+0.87%)

미 증시 참여자들은 섣다운 장기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표결 등 악재성 재료 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에 반응을 보인 모습.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4 분기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6% 증가 했을 것으로 전망해 지난 9 월말 관세 발효 이전(yoy +16.7%) 보다 6.1%p 하향 조정 되었다고 발표. 더불어 2019 년 1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하는 등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아져 있음.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및 가이드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

이런 가운데 오늘은 넷플릭스(+6.52%)가 시청료를 상향 조정 하자 급등 했으며, 아마존(+3.55%)은 스트리밍 부문의 성장 속도가 증가하고 분석이 전해지자 상승. 아마존과 알파벳 등은 디지털광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4 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에 힘입어 상승. 대체로 FANG 기업들의 오늘 상승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 여기에 전일 약가 관련 청문회로 하락 했던 제약, 바이오업종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가 제기되자 대부분 상승. 결국 미 증시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이 상승 주도.

한편,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432:202 로 부결. 그러나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1% 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던 파운드화가 부결 이후 강세로 전환. 미 증시도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매수세가 유입되며 재차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향후 일정은 16 일 정부 불신임안 논의, 21 일 정부의 2 차 플랜 발표, 이후 보수당 의원들과 논의 후 EU 와의 재협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097.18	+1.58	홍콩항셱	26,830.29	+2.02
KOSDAQ	690.39	+1.07	영국	6,895.02	+0.58
DOW	24,065.59	+0.65	독일	10,891.79	+0.33
NASDAQ	7,023.83	+1.71	프랑스	4,786.17	+0.49
S&P 500	2,610.30	+1.07	스페인	8,850.10	+0.36
상하이종합	2,570.35	+1.36	그리스	622.78	-1.13
일본	20,555.29	+0.96	이탈리아	19,165.48	-0.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기술주, 제약 바이오 업종 상승

넷플릭스(+6.52%)는 시청료 인상을 발표하자 실적 호전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미 법무부가 기술업종에 대한 반독점 우려를 표명했으나, 대형 기술주 대부분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페이스북(+2.45%)은 3년동안 3천억달러를 뉴스와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 지자 상승 했다. 시장에서는 뉴스플랫폼을 보유함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알파벳(+3.33%)은 광고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아마존(+3.55%)은 스트리밍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광고 수익이 2018년 1~3 분기동안 두배 이상 증가했다며 4분기 실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상승 요인이었다.

브리스틀마이어스(+3.65%)는 EU가 세포 암종(RCC) 환자의 1차 치료를 위해 Opdivo와 저용량 Yervoy의 조합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자 향후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인사이트(+7.10%)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으로 상승했다. 한편, 웰스파고(-1.55%)는 부진한 매출 여파로 하락 했으나 JP모건(+0.73%)은 상승에 성공 했다. 델타항공(+0.17%)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보험권에 머물렀으며, 유나이티드헬스(+3.55%)는 개선된 실적에 힘입어 상승 했다. 쉐일(-0.00%)은 애플 COO가 앞으로 쉐일 칩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15%	대형 가치주 ETF	+0.67%
에너지섹터 ETF	+0.67%	중형 가치주 ETF	+0.65%
소매업체 ETF	+0.32%	소형 가치주 ETF	+0.54%
금융섹터 ETF	+0.89%	배당주 ETF	+0.40%
기술섹터 ETF	+1.51%	변동성 ETF	-4.56%
소셜 미디어업체 ETF	+1.57%	대형 성장주 ETF	+1.44%
인터넷업체 ETF	+2.45%	중형 성장주 ETF	+1.15%
리츠업체 ETF	+1.13%	소형 성장주 ETF	+1.18%
주택건설업체 ETF	-0.20%	신흥국 고배당 ETF	+0.50%
바이오섹터 ETF	+1.93%	신흥국 저변동성 ETF	+0.35%
헬스케어 ETF	+1.80%	하이일드 ETF	+0.26%
곡물 ETF	-0.47%	물가연동채 ETF	-0.09%
반도체 ETF	+0.27%	Long/short ETF	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8.80	+0.30%	+1.31%	+0.63%
소재	322.82	-0.65%	-0.87%	+0.93%
산업재	569.31	-0.32%	+1.60%	+1.46%
경기소비재	832.03	+1.13%	+0.65%	+3.01%
필수소비재	532.71	+0.96%	+0.40%	-4.12%
헬스케어	1,022.98	+1.74%	+1.46%	-0.36%
금융	412.99	+0.81%	+2.36%	+3.06%
IT	1,121.68	+1.48%	+2.12%	-0.68%
커뮤니케이션	149.02	+1.74%	+1.02%	+3.18%
유틸리티	267.57	+1.27%	-0.69%	-6.54%
부동산	199.92	+1.06%	+2.12%	-2.7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

MSCI 한국지수 ETF 는 1.42% MSCI 신흥지수 ETF 도 0.69%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2,373 계약) 여파로 0.80pt 하락한 270.0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1.9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FANG 기업들과 제약, 바이오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섣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및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소식 등 증시 주변 이슈 보다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춘 모습으로 한국 증시 또한 관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 되었다. 용커 EU 집행위원장의 일부 양보 시사 발언과 독일 외무 장관이 “합의안이 부결되면 관련 협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 하는 등 EU 의 양보가 기대 된다는 점도 관련 이슈의 부정적 요인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달러화 강세폭이 축소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 된 점도 긍정적이다. 더 나아가 매파 성향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 현재 경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상은 중단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이 높아져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물가 압력 완화 및 제조업지표 둔화

12 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1% 하락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1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잔월(11.5)는 물론 예상치(12.0)을 크게 하회한 3.9 에 불과했다. 세부항목으로는 신규수주(13.4→3.5), 고용지수(17.5→7.4)는 물론 재고지수(7.1→-7.6) 등이 하락을 주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연은은 “제조업의 성장 둔화는 지속되고 있다” 라고 발표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브렉시트 표결 이후 강세 전환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EIA 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생산량 전망을 하루 1,127 만 배럴로 예상해 전월과 변화가 없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드라기 ECB 총재가 “최근 경제 상태는 예상보다 약하며 경기 부양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 라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결과를 앞두고 달러 대비 1%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432:202 로 부결된 이후 강세로 전환 했다. 이는 EU 의 일부 양보 기대감이 유입된 결과로 추정한다.

국채금리는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다만, 단기물은 연준위원의 발언 여파로 하락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 했다. 매파성향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금리인상에 대해 인내해야 되며 현재상태에서는 금리인상은 중단해야 한다” 라고 발표한 점은 단기물 하락 요인이었다. 더불어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를 표명도 영향을 줬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중국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기간장에서 철광석은 0.79% 상승 했으나, 철근은 0.4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11	+3.17	+4.68	Dollar Index	95.963	+0.37	+0.06
브렌트유	60.64	+2.80	+3.27	EUR/USD	1.1415	-0.47	-0.23
금	1,288.40	-0.22	+0.19	USD/JPY	108.68	+0.48	-0.06
은	15.620	-0.42	-0.59	GBP/USD	1.2883	+0.15	+1.31
알루미늄	1,845.00	+0.93	-1.05	USD/CHF	0.9873	+0.64	+0.61
전기동	5,920.00	+0.39	+0.24	AUD/USD	0.7202	+0.07	+0.87
아연	2,456.00	-1.13	-1.17	USD/CAD	1.3274	-0.08	0.00
옥수수	371.25	-1.92	-2.30	USD/BRL	3.721	+0.65	+0.20
밀	511.00	-0.63	-1.30	USD/CNH	6.7728	+0.14	-1.19
대두	893.25	-1.13	-2.75	USD/KRW	1120.70	-0.20	-0.30
커피	101.30	-1.41	-3.57	USD/KRW NDF1M	1121.90	+0.11	-0.0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11	+0.88	-1.68	스페인	1.387	-2.90	-12.40
한국	1.962	-1.00	-3.00	포르투갈	1.656	-2.30	-16.20
일본	0.013	-0.40	+0.10	그리스	4.252	-2.30	-7.40
독일	0.206	-2.50	-2.00	이탈리아	2.872	+3.10	-8.00